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9월 25일(금)
(윤력 8월 9일)
Пятница
25 сентября 2020г.
№ 38 (11690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9일(토) 홉스키에서 러·한 수교 30주년을 맞아 제4회 <한 가정에서>민족간 축제가 열렸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

(배순신 기자 촬영)

사할린 지역 난방 준비 완료

사할린 지역은 난방시즌을 맞을 준비를 완료하였다. 보일러시설의 준비도는 98%, 난방 시스템 97%, 급수 시스템 95%, 주택들은 100%이다. 이 같은 내용은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사할린주 정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10월 1일까지 모든 구역에서 겨울 준비 작업이 전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방 공급은 기후를 고려하여 계획되어 있다.

9월 18일부터 오하 구역에서, 9월 21일에는 스미르니흐 구역의 페르워미스크 마을에서 난방이 시작되었다.

사할린주는 석탄 7만8,900톤과 액체 연료 3,100톤이 공급되었다. 나머지 연료들은 10월 초에 도착할 것이다.

사할린주 주택공공경리부 장관 나탈리아 쿠프리나는 "현재까지 토마리 구역에서는 가을-겨울 난방 준비가 아직 미흡하며, 마리의 보일러 시설은 산업 안전에 대한 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르사코브구역도 난방준비가 될 되었다. 6월말에야 코르사코브에 있는 군사건물 일부가 연방소유물에서 주소유물로 인수되어 군사단지 보일러 시설, 난방망, 수도관 등 수리에 주예산에서 1억1,600만루블리가 책정되었는데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할린주 정부 자료에서)

2020년 사할린주 경제성장 중심지 개발에 210억 루블리 배정

사할린 지역은 단일 보조기금 사용 측면에서 극동 지역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해당 내용은 9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방정부총리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구 러시아대통령전권대표가 주재한 극동지역 지도자-지사들과의 회의에서 발표했다. 사할린주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도 이 행사에 참가했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까지 994억 루블리를 경제성장 중심지 개발에 배정해 투자사업이 시행되는 곳에는 더 나은 민생여건이 조성되도록 했다. 현재까지 극동지역에서 이미 363개 시설이 건설 및 재건축됐다. 나후주택에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6만5,000㎡ 규모의 주택을 건설했고, 사회시설 243곳이 리모델링됐다.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모든 작업을 제시간에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유리 트루트네프가 극동지역 지사들에게 말했다.

사할린에서는 경제성장 중심지에 대

한 사회발전계획의 일환으로 3년 안에 77개 부문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와 유치원, 의료기관, 문화개발센터, 스포츠단지, 아스팔트 도로 건설, 긴급자금 및 주택 내진 보강, 주택 및 공동 서비스의 현대화, 가스화 등의 사업이다.

이로써 2020년에는 사할린 지역 경제성장 중심지 개발을 위해 연방 예산의 49억 루블리를 포함하여 210억 루블리가 배정되어 현재까지 좋은 성과와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사할린과 쿠릴에 이미 13개 시설이 완공되어 운영되었다. 이 중에는 달네에 학교, 루고위에 장애아동 학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6번 학교의 추가 건물 등 3개 학교가 있다. 이외에 토마리 구역 일린스키 마을의 유치원과 세웨로쿠릴스크의 스포츠·휴양 단지 등이 문을 열었다. 사할린 지역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아직 연말까지 많은 양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더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단신

사할린주, WorldSkills 러시아 챔피언대회 17위

러시아WorldSkills 프로대회 결과에 따르면 사할린주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프로정신 메달 6개를 획득했다. 이렇게 하여 사할린은 전 러시아 32위에서 1년 만에 17위로 올라섰다.

올해는 전국대회 최초로 온라인 기술 및 원격통신 기술을 합쳐 혼합 형식으로 치러졌다. 러시아 전역에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WorldSkills 러시아 결승전에 참가했다. 그들 중에는 12세에서 22세의 학생들도 있었다.

사할린 주는 210개 부문 중 32개 부문에 36명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수상자 중에는 "주니어 그래픽 디자인"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김윤미씨가 포함되어 있다.

사할린 원주민, '북쪽의 보물' 전시회에 참가

9월 23~27일 모스크바 소콜니키 전시센터에서 제15회 전시박람회 '2020 북쪽의 보물-러시아의 거장과 예술가'가 열린다.

전시회 프로그램에는 '북극 유목민' 러시아 북부, 시베리아, 극동지역 원주민들의 문화축제; <북극 스타일> 북방소수민족민속의상 축제, <북쪽의 시선>사진 공모전, <땅의 어머니. 토착 민족. 생선>축제 등이 있다.

이 행사에는 사할린 원주민도 참가한다. '북극 유목민' 축제에서는 포로나이스크의 민족양상물 '멘구메 일가'(은빛 무늬)가 공연한다. 이는 사할린 주의 네 원주민-니브흐족, 나나이족, 우일타족, 에벤크족-의 문화를 소개하는 유일한 민족단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할린 장인들이 공예품을 출품한 것만 아니라 활동교실을 진행해 모스크바 주민들과 방문객들과 함께 다양한 기술을 공유한다.

사할린 대표단은 '원주민들의 문화와 음식에서 물고기의 역할' 콘퍼런스와 북·시베리아·극동 토착민족 포럼 행사에 참여한다.

사할린주, 4만7,000 톤 연어 어획

사할린주 기업들의 각종 연어 어획량은 현재 4만6,982.727톤이다. 이는 사할린 지역 어업지에서의 해당 어종 권장 어획량의 52.27%에 해당한다.

지역 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9월 21일 현재 송어 어획량은 약 3만3,000톤, 이 어획량의 절반은 쿠릴 지역 업체들이 잡은 것이다.

지역업체들의 홍연어(네르카)와 은연어(키주츠) 전체 어획량은 각각 810.680톤과 426.450톤에 이른다. 이 고급 연어류는 주로 파라무쉬르의 어부들이 잡았다.

케타(참연어) 어획량은 총 131만 3,434.6톤인데 3,616.52톤은 돌린스크구역 업체들이 획득했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1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러·한 수교 30주년 맞아

출장소와 동포사회가 앞으로도 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 출장소 박기동 소장과의 인터뷰

2020년 9월30일은 러·한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기념일을 앞두고 본사 배순신 기자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박기동 소장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소장님께서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에 부임하신지 1년 반 되었네요. 그 동안 적응은 잘 하셨나요?

- 어느새 1년 반이 지나 조금 당혹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아마도 너무 적응이 잘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 와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사할린에 계시는 동안 소장으로 기획하고 실천하신 것은요?

- 그간 여러 임지에서 영사로서의 저의 경험은 동포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장소가 진심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소통이 부족하면 목표한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때론 동포 사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사회와 열심히 소통과 교감을 하여 출장소와 동포사회의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우선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 소장님께서 사할린의 어떤 지역을 다녀오셨는지요?

- 올해 초부터 여러 지역 방문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홈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 등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인근 지역은 거의 방문했습니다

만, 여타 지역을 가보지 못해 지금부터 부지런히 방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토마리와 우글레고르스크를 방문해 현지 한인 회장님들로부터 동포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 상황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사할린동포와 관련해 잊지 못하는 일화가 있으신지요?

- 작년에 윤상현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방문이 저에게 의미가 깊고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사할린 현지 방문이 계기가 되어 그간 동포들께서 오랫동안 고대하시던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이 입법되어 큰 숙제가 하나 해결된 느낌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간 무사증협정이 일시 중단되었고, 3월부터 러시아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에 따라 양국의 자국민 수송용 특별기만 간헐적으로 오가다가 올 9월 27일부터 정기 항공 운항이 공식적으로 재개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 한-러 간 정기 항공 운항은 곧 재개될 예정이지만, 안타깝게도 사증면제협정은 아직 일시 중단된 상태로 양국 국민은 모두 사전에 재외공



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관련 문의는 저희 출장소로 언제든지 연락(42-24-30)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및 음성확인서 지참 등의 방역지침도 양국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국 전 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 제2차 대전 75주년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사할린주정부에 축하문을 보내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 제2차 대전에서 가장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러시아의 희생을 기억하고, 최종적 승전을 위한 러시아의 핵심적 기여와 불굴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인류가 누려온 75년이란 유례가 드문 장기간의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의 의미를 밝히면서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적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유

대와 협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올 9월 30일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에서 어떤 것을 기획하셨는지요?

- 본국의 오케스트라단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행사 2가지를 추진 중입니다.

사할린주정부와 공동으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10.9(금) 사할린 국립대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한국 소개 SNS 공모 대회'를 마련하여 10월말 까지 출품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동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동포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출장소를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장소와 동포 사회가 앞으로도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하여 사할린 동포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행복한 동포사회를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출장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할린 석유 가스〉 컨퍼런스, 9월 30일 열려

제24회 사할린 석유 가스 국제 컨퍼런스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린다. 연방 및 지역 집행기관 대표, 세계 유수의 석유·가스·에너지 기업 대표, 서비스·계약기관 대표, 과학계 대표 등 총 6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이번 대회는 강화된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특별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는 사할린을 직접 방문할 대표와 온라인 형태로 참가할 전문가로 이루어진다. 이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란 4가지 주제의 회의, 석유가스프로젝트 운영자와의 미팅(일대일로 120회 이상),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한 토론,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특수성이다. 사업프로그램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 석유 및 가스사업 이행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축적된 경험, 가스화 문제, 사할린 및 극동지역 천연가스 차량 개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가스시장 경쟁이라는 지정학적·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액화천연가스의 생산·운송·보관·소비등의 전망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모 저 모

스미르니흐, 어머니의 날에 '작은 공주' 선발

연례 행사 '2020 스미르니흐의 작은 공주' 대회가 11월 29일 열린다고 마을 레저센터 홈페이지에서 전했다.

행사에는6세- 9세 소녀들이 참가할 수 있다. 레저센터(스미르니흐, 마야코브스키 거리 9번지)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대회 신청은 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가능하다.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일에 제1회 '스미르니흐의 작은 공주' 대회가 열렸으며 스미르니흐 구역의 5세부터 8세까지의 여아 8명이 참가했다.

"Маленькую принцессу" выберут в Смирных в День матери

Ежегодный конкурс "Маленькая принцесса Смирных – 2020" пройдет 29 ноября,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поселкового центра досуга.

К участию в нем приглашаются девочки в возрасте от шести до девяти ле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конкурс и получить интересу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в центре досуга (Смирных, улица Маяковского, 9) во вторник-пятницу с 10:00 до 13:00.

По информации, размещенной в интернет-источниках, первый конкурс "Маленькая принцесса Смирных" проводился 8 март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семь юных жительниц района в возрасте от пяти до восьми лет.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 무기의 영광' 전시회 개막

승리 박물관에서 '러시아 무기의 영광' 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사할린 지역의 문화·고문서부가 톨라 국립 무기 박물관과 유지하고 있는 장기적이고 성과 있는 상호 협력 덕분에 유즈

노사할린스크에서 이런 중요한 행사 개최가 가능했다.

이 전시회는 300년 러시아 무기 개발의 역사를 되짚고, 러시아 군사사의 주요 순간, 공학 업적, 톨라 무기 마스터들의 훌륭한 기술을 보여준다. 전시품으로는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기의 여러 종류의 검(필러시, 사불랴, 사슈카), 도끼 창, 나팔총, 기관총, 권총 및 기타 무기 등이 있다.

전쟁 기술의 특성, 20세기 전반의 소형 무기 유형에 대해, 그리고 고대부터 1914년까지의 무기들에 대해 멀티미디어 키오스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유소년들을 위한 강연회, 팀 게임, 관람코스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승리 박물관 측에서 밝혔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Слава российского оружия"

В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Слава российского оружия".

Столь значимое для области событие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длительному и плодотвор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Туль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музеем оружия.

Выставка позволяет проследить 300-летнюю историю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ружия, узнать о ключевых моментах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достижениях инженерной мысли и непревзойденном мастерстве тульских оружейников. Среди экспонатов – палаши, сабли, шашки, алебарды, мушкетеры, карабины, пистолеты и другое вооружение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VIII –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ов.

Узнать о выдающихся личностях во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идах стрелкового оружия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энциклопедией оружия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1914 года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в мультимедийных киосках. А для юных гостей подготови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командные игры, экскурси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сообщает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사할린 바이커들, 시즌 마감

사할린 바이크 시즌 폐막식이 주도시에서 열린다. 이 행

사는 9월 26일 고르니 워스두흐 스포츠 관광 단지의 중간 지점에서 열릴 것이며 200여명의 바이커들이 참가할 것이다.

행사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진행자 미하일 마요르가 준비한 데마벨 경연, 사할린주 보디빌딩 연맹의 힘겨루기 대회, 사할린 익스트림 사이클 클럽의 시범 공연, 〈아나톨리츠의 건강〉헬스 프로젝트의 활동, 댄스 그룹 Def Rush의 쇼공연, DJ 니콜라이 손체브와, 안드라스 아코디언의 음악공연, 빅토르 루드네브의 라이트쇼 등이 있다. 그 외 어린이 놀이터 및 푸드코트도 들어선다.

"전통적으로 록 콘서트를 주선해 왔는데, 올해는 밴드 '에카르마', '날록 나 스페치키(성냥에 대한 세금)', 마옌, 아니와, Room-420, Flying Eyeball 그룹 등이 공연한다. 그리고 사할린에서는 처음으로 하바롭스크의 스텐트 라이딩 쇼도 선보일 것이다. 이 쇼 출연자들은 오토바이 묘기를 부릴 것"이라고 행사 주최측은 전했다.

이날 행사의 손님과 참가자들은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케이블카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축제 행사는 15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Сахалинские байкеры закроют сезон

Закрыт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тосезона состоитс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26 сентября. В нем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больше 200 байкеров.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одготовили насыщ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тематические конкурсы от ведущего Михаила Майорова, силовые состязания от федерации бодибилдинг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от "Сахалинского клуба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велоспорта", интерактивы от проекта "Здоровье Анатолича", шоу-номера от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Def Rush, музыкальные сетсы от DJ Nikolay Solncev и Andras Accordion, световое шоу от Виктора Руднева. Кроме этого, будет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и зона фуд-корта.

(8면에 계속)

민족끼리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 가정에서〉민족간 축제 성공 진행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9일(토) 홈스크시에서 러·한 수교 30주년을 맞아 제4회 〈한 가정에서〉민족간 축제가 열렸다.

전날 비바람이 불고 또한 행사날에 비가 올 것이란 일기예보로 원래 계획했던 야외 행사를 변경해 홈스크지역 중앙문화회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회관 앞에는 〈한 가정에서〉축제를 소개하는 사진,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활동에 관한 사진, 동포 생활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들이 관객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문화회관 홀에는 한민족 전통 의상과 전통 악기 코너, 러시아 민족 의상 코너, 활동교실(한글쓰기, 러시아인형만들기 등) 코너, 한식과 슬랍(러시아, 벨라루시)음식 시식 코너와 포토존이 펼쳐졌다. 입구에서는 태극기와 러시아 깃발을 나누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와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주로 러시아식 천인형 만들기 활동교실에 참가하고 소년들과 어른들은 한글쓰기·종이 책갈피 만들기 등에 참여했다. 이날 한글쓰기 활동교실은 사할린국립대 역사·언문·동양학 대학 학장이며 사할린주한인협회 부회장인 임 엘위라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맡았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문화회관 홀은 한인, 러시아인 등 남녀노소로 흥성거렸다.

12시 이후 문화회관 공연장에서는 축제의 공식적 개막이 있었다.

이를 위해 사할린주정부 공공커뮤니케이션국 예고르 옴노브 국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출장소 광기동 소장, 홈스크시 엘레나 미헤예와 문화관리국 국장 대행, 사할린주두마 아르쎘 크루글리크 의원,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무대에 올라 관중들을 환영했다.

예고르 옴노브 국장은 축제 개막을 축하하며 한민족 전통문화를 장기간 널리 보급하고 러한 민간 관계발전에 힘써온 제4회 〈한 가정에서〉축제 조직위원장 이진선 씨와 홈스크한인회 운영위원 림 덕신 씨에게 주지사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광기동 소장은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금번 행사는 한국과 러시아 국교수립 30주년의 기념을 겸하고 있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국교를 수립하여 30년이 되었고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는 2007년에 설립되어 13년이 되었습니다."라며 "사할린은 우리 한인동포가 2만6천 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한·러 협력의 중추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출장소는 동포들의 단결, 한국 문화 계승 발전,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박순옥 회장은 앞으로도 사할린에 살고 있는 120여 민족들이 충돌없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며, 사할린주한인협회 발의로 생긴 〈한 가정에서〉민족간 축제의 확대를 빌고 축제가 개막되었다고 표명했다. 이날 박 회장은 축제 발전에 기여한 홈스크시 드미트리 류브치노브 시장과 엘레나 미헤예와 문화국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공연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온 아티스트들이 하였다. 한민족 문화예술은 이날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팀(단장 송천석)·〈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과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희망〉 및 〈연꽃〉무용단들(단장 김 안나 교사), 러시아 민족 예술을 〈루스키 테렘〉현 러시아 민족 노래 앙상블과 사할린러시아민속합창단(단장 안드레이 멜니첸코)이 대표해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정말 볼만한 광경이었다. 특히 얼마전에 전국 〈대학생의 봄 2020〉축제에서 그랑프리를 따낸 〈하늘〉사물놀이팀, 그리고 한국 안산 거리 축제에 여러번 참가한 〈루스키 테렘〉앙상블의 무대가 있을때 많은 관객들이 이들의 공연을 스마트폰에 담았다. 중년 이상의 여성들로 구성된 〈아리랑〉무용단은 항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에트노스〉학생들은 정말 우리들의 희망이며 자랑이다.

공연 내내 따뜻한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공연이 끝나자 민족요리 경연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이날 홈스크 한식 카페(사장 박영순)에서 만든 사할린 동포들이 즐겨 만드는 다양한 반찬 등을(해물부침, 나물 부침, 당면 등), 아니와를 대표해 배영희 씨가 만든 김밥과 떡볶이, 홈스크 식당들에서 만든 러시아 및 벨라루시 음식을 시식하며 마음에 드는 코너를 선택했다. 가장 많은 투표권을 받은 〈머스펙트〉카페(사장 박영순)가 우승하여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축제 일환으로 홈스크 체육관에서 씨름대회가 펼쳐졌는데 이에 홈스크 2개 팀, 유즈노사할린스크, 네웰스크, 코르사코브 학생선수팀과 성인 총 50여 명이 참가했다. 씨름대회 주최자로 나선 사할린주씨름협회(회장 준 알렉세이)에 따르면 팀경기에서는 홈스크팀이 우승했고, 성인 개인 경기에서도 역시 홈스크 선수가 승리하고 우승컵과 좋은 상품을 받았다.

〈한 가정에서〉축제를 떠나는 어르신들과 어린이, 일반인은 구경도 잘 하고 시식도 맛있게 하고 활동교실에 참가해 제 손으로 선물도 만들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면서 내년 축제를 기대한다고 했다.

(취재: 배순신)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지리산 홍길동

중학교 때 무지막지한 학생주임이 있었다. 꼬투리를 잡으면 교무실, 운동장, 복도를 가리지 않고 학생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엉덩이에 여의봉을 휘둘렀다. 아픔에 수치심이 더해지면 고통은 몇 배가 된다.



어느 날 솔깃한 소문이 돌았다. 지적장애인인 우리 반 홍길동이 학생주임의 조카라는 것이다. 여럿에게 뒤통을 당한 길동이는 결국 비밀을 털어 놓았다. 그 뒤로 길동이의 학교생활은 심하게 꼬였다. 학생주임에게 당한 친구들이 길동이를 만나면 이래저래 분풀이를 했다.

길동이를 구박하는 친구들을 한두 번 말렸지만 나 역시 학생주임에게 당한 뒤로는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다. 덩치 크고 조용했던 길동이는 결국 이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났다. 길동이는 금세 잊혀졌고 학생주임은 여전히 학생들의 바지를 벗겨 여의봉을 휘둘렀다.

고등학교 때부터 종종 거짓말로 조퇴를 하고 기차를 탔다. 들판에 앉아 지리산 노고단을 바라보거나 섬진강을 따라 걷다가 밤에 돌아오곤 했다.

길동이를 다시 만난 곳도 지리산 밑이었다.

어지럽게 화창한 봄날 대학 강의를 빼먹고 기차를 탔다. 구례 읍내를 지나 섬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서시천 강둑에는 갖가지 풀꽃이 한창이었다. 봄별 아래 누워 노고단을 보다가 저만치서 떠드는 아이들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몇 년 만에 보는 길동이가 거기 있었다. 손을 내두르며 걷는 길동이를 따라가며 아이들은 소리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웃어댔다. 길동이는 아이들에 밀려 금방 멀어졌다.

길동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다행이었다. 땃땃하게 인사하기에는 마음 한 구석이 찢렸으니까. 살다보니 혼자만 따끔한 바늘을 품을 때가 있다.

그 뒤로 길동이를 다시 보지 못했다. 아마 평생 보지 못할 것이다. 학생주임은 인자한 노인이 되었을까? 길동이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잊고 살다가도 지리산에 갈 때면 그 날이 떠오른다. 그때 파리처럼 따라붙던 아이들이라도 말려야 했나 뒤늦게 후회를 한다.

광주에서 김남중

재외동포재단, 국방홍보원과 MOU 체결 - 내국민 대상 재외동포 이해 제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내국민 대상 재외동포 이해 제고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홍보원(원장 박창식)과 9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김봉섭 전문위원, 박준희 연구소통부장, 국방홍보원 박창식 원장, 신일현 미디어전략실장, 김태형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내국민 대상 재외동포 이해 제고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대한민국 독립과 국방에 헌신했던 재외동포 주요인물 발굴 및 소개 등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는 역사적으로 조국 독립과, 6.25 전쟁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 등 대한민국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음에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실정"이며, "이번을 계기로 조국 독립과 국방에 헌신했던 재외동포를 더 널리 알림으로써, 5,200만 내국민과 750만 재외동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민족 통합적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국방홍보원은 안보와 국방에 관한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국방일보」를 발간(발행부수: 145,000부)하고, TV와 FM라디오, 뉴미디어 등 국방미디어를 운영하며, 각종 군 관련 영상물과 출판물을 제작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ясные блюда на праздник Чхусок станут деликатесом

Многие южнокорейцы, похоже, воздержатся от посещения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а праздник Чхусок в этом году, вместо этого посылая им дорогостоящие подарки.

Сеть универмагов Hyundai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а заказы на праздник и выяснила, что продажи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ого мяса выросли на 99 процентов, импортных деликатесов на 226 процентов и вина на 105 процен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ети Син Хун Ку сказал: «Поскольку кризис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одолжается, люди решили заменить поездки в свои родные города покупкой подарков».

Сети магазинов E-mart начали принимать заказы на подарки с 13 августа и с тех пор продажи подарочных наборов стоимостью свыше 200 000 вон выросли на 40,1 процента, а подарки меньшей стоимостью лишь на 19,3 процента.

Торговля быстро отреагировала на спрос. Сеть магазинов Lotte подготовила 100 наборов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говядины по цене 1,7 миллиона вон каждый, а сеть Hyundai выставила на продажу бутылки оливкового масла по цене 45 000 вон, выработанного из деревьев возрастом свыше 1 000 лет.

ИА РУСКОР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провели в Холмске

Мастер-классы, игровы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выстав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одежды, предметов быта и дегустац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Четвёртый год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радует гостей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ью и разнообразием досуга. В этот раз событие посвятили 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двух дружеских держав –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По этому случаю в Центральн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состоялся одноимённый концерт.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были почётные гости.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от себя лично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открытием фестиваля. Я желаю всем здоровья, отлич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С праздником! – 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ществен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р Умнов.

Здравствуй! Поздравляю холм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СХ с успешным открытием четвертого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В семье единой". Думаю, в этот раз мероприятие имеет ещё более глубокое значение, так как посвящено 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ей, – сказал консул генеральной канцелярии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Квак Ки Донг.

На сцене Централь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выступ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орейское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представили гост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анца "Ариран" при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оспитанники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и ансамбль барабанщиков "Ханыль"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Ансамбль современной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Русский терем" и Сахалинский русский народный хор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одолжили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Идея проведен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В семье единой" принадлежит О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плоти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се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 главная цель мероприятия.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дело сохранения тради-



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 развит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ждены председатель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IV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В семье единой" Ли Тин Сон и член холм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Лим Дык Син.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ыразил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мэру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Дмитрию Любчинову и исполняющему обязанности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культуры Елене Михеевой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и проведение областного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В семье единой".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В семье единой" в фойе Централь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аботали разные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Фотовыставка,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портивно-игровая площадка, где у всех желающих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играх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а также конкурс национальных угощений "Кулинарный корт". Судьями на нём могли выступить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гости.

В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работала ещё одна площадка фестиваля "В семье единой". Там прошли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в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ырым", где победу одержали холмчане, сообщает администрация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Рукописи не горят»: книги (1924 – 1937) —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мятни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2018 году благодаря профессору Юн Санвону, директору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Корё сарам»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Чонбу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 Восточном отделе была начата работа по сканированию книг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зданных в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Росси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 Восточном отделе хранится более 550 томов, изданных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СССР. Среди этого массива книг можно найти книги для детей, учебн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начальных и средних классов, методические пособия для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чебники, переведённые 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о общим дисциплинам. Прекрасные переводы классико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книг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экономике и сель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на хангыле были изданы с 1924 до 1937 года.

Вопреки утверждениям многих зарубежны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ставящих под сомнение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ССР (1920 – 1937) в период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Япон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данные источники доказывают, что уровень родного языка был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и имел высокий потенциал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История возникновения книгопечат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СССР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ведёт свое начало с 1924 г. Примор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омитет РКП(б) определил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культурной работы среди корейцев: школьное, издательское дело, организация клубов и открытие театра, политическое просвещение, ликвидация безграмотности, антирелигиозная пропаганда.

В этот период организация работы в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была сопряжена с больш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Не хватало школ, учителей и учебников. Тем не менее, власти и местное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прилагали усилия к улучшению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жде всего, издавались учебник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ля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Первыми авторами этих книг стали известные корейцы-коммунисты,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деятели.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 интервентов многие из них стали учителями в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и техникумах, работал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краевом отделе 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Весь труд по созданию учебников лег на их плечи. С 1924 по 1937 было издано 467 книг раз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В 1936 – 1937 г.г. вышли книги с переводами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оизведений А. С. Пушкина, А. П. Чехова, Максима Горького, К. Г. Паустовского и др.

Учебник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пускались тиражом от 3000 до 35000 экземпляров. До 1930 года книги издавалис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затем в Хабаровске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краевом издательстве «Книжное дело». Все учебники издавались после согласования в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м совете пр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краевом отделе 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или комиссии по учебной книге при Далькрайоне для корейских ШКМ.

После выхода Постановления СНК СССР и ЦК ВКП(б) от 13 марта 1938 г. № 324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изучен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школ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республик и областей» книг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екратили издавать.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техникумы и корей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были переведены на преподава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было принудительно выселено с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Библиотек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шла из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 фактически была уничтожена.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1948 году в Ташкенте была издана одна книга и в 1950-е годы в Москве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Прогресс) опубликовано 5 книг.

Книг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зданные в СССР (1924 – 1937), это уникальный и неординарный объект памяти. Они воплощают собой особую цен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для современников, но и для по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Они памятник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России. Эти



книги символично отражают менталитет, идеалы, стремления, мировоззр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ни являются важнейшими компонентами наследия России и Кореи.

Жанна СОН, к.и.н.,
доцент Школы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НИУ ВШЭ
(Источник: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еул призывает Москву сотрудничать в улучшен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Ли Ин Ён попрос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Россию сыграть «конструктивную» роль в улучшен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построении прочного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ходе первой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июле в должность министра встречи с послом России в РК Андреем Куликом он отметил важную роль Москвы в реализации трёхсторонних проектов с участием двух Кореи и России. Ли Ин Ё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их успешная реализация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миру и процветанию в регионах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Евразии. Министр подтвердил жела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прямо сейчас»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екты в тех областях, которые не затронуты санкциями, в том числе, в гуманитарной области.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посол России выразил поддержку диалогу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отметив, в частности, что приграничные обмены могут сыграть «очень важную» роль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усиливаются меры профилактики COVID-19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период выходных по случаю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с 30 сентября по 4 октября более 27 млн южнокорейцев отправятся в поездки на малую родину или на отдых. В этой связ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готовило меры обеспечени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дорогах. Ожидаемый объём поездок по стране составит 4 млн 600 тыс. человек в сутки. Это на 28,5%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ем не менее, существуют серьёзные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новых вспышек COVID-19.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властями меры разрешают заведения общепита в местах отдыха вдоль скоростных дорог работать только на вынос. Все посетители должны фиксироваться через специальный QR-код. В таких местах увеличивается численность персонала, который будет следить за соблюдением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правил. Кроме того, там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туалеты, чтобы избежать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Как сообщалось ранее, дорожные сборы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сохраняются. Полученны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оход пойдёт на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е нужды. Будут усилены меры дезинфекц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екомендуется на 50% ограничить продажи билетов на автобусы и самолёты. Ра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изывало граждан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поездок и провести праздник дом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К избран в комитет ООН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Профессор Со Чхан Рок из аспирантур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избран в четверг в состав экспертной группы комитета ООН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контролирует выполн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акта о граждански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авах. Члены экспертной группы, в составе которой 18 человек, избираются на 4 года. Профессор Со Чхан Рок имеет многолетний опыт работы в област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возглавляет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Human Asia,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комитета Совета ООН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Он стал перв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в составе комитета с тех пор, как РК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в 1990 году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акту о граждански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авах.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К прошла во второй тур выборов главы ВТО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торговой полит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Ю Мён Хи прошла во второй тур выборов нового главы Всемирной торг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ТО).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пятницу, кандидаты из Мексики, Египта и Молдовы не получили достаточной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вом из трёх туров голосования. Остальные пять кандидатов – Ю Мён Хи,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Кении и Нигерии прошли во второй тур,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из борьбы должны выбыть три кандидата. В финальный раунд пройдут двое, и новый глава ВТО будет назван в начале ноября. В случае избрания Ю Мён Хи обещает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доверия к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торговой системе, сделав её более устойчивой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гибкой.

МИД РК продлил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о нежелательности заграничных поездок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продлить ещё на месяц, начиная с 19 сентября, специальное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о нежелательности заграничных поездок. Оно было впервые объявлено 23 марта на три месяца, а затем ежемесячно продлевалось.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вышеуказан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в связи с продолжением пандемии COVID-19 в мире, тем более, что многие государства ограничили въезд на свою территорию. Южнокорейцев, находящихся за рубежом, призывают приня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лич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RKI)

В Тюмени открыт «Парк дружбы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честь 30-й годовщины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Парка Дружбы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городе Тюмени.

Почётный консу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горь Самкаев выступил единоличным инвестором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Парка Дружбы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этом году парк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новым объектом на кар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вящённым празднованию 30-й годовщины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Тематический парк содержит уникальные объекты архитектуры, редкие виды растени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а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зон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Парк отвечает всем требованиям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у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понравившиеся деревья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зеленении парка. Собранные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проект социаль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Ключ к жизни» для помощи тяжелобольным детям.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проект «Ключ к жизни» более девяти лет помогает детям. Он стартовал 20 июня 2011 года по инициативе экс-губернатора Тюменской области В.В. Якушева и стал ярким примером объединения усилий государства и граждан в оказа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омощи



тяжело больным детям.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акции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 отчет об адресной помощ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В день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открытия «Парка Дружбы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ысадки деревьев с участием 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губернатора Тюме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член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юме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авы города Тюмен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Ро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ИА РУСКОР

И кистью, и пером

В одном из самых оживлённых районов Сеула Инсэдоне, в галерее «ТОРОНАУС», 23 сентября открылась перс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картин россий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и писателя, номинанта Букеровской премии Михаила Пака «Далёкое – Близкое», посвящённая 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Галерея будет открыта до 28 сентября.

В день открытия состоялась также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Лёг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еке», четвёртой из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сеульским издательством «Сансан» семитомника прозы. «В книгу вошел роман с одноимённым названием, – сказал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ИА РУСКОР Михаил Пак. – В корейском издании роман озаглавлен «Эолли». Руководство галереи, в связ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разрешило пригласить на открытие только до 30 гостей, что я и сделал, разослав приглашения. Разумеется, в Корею друзей у меня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не обесудьте, если кого-то не пригласил. С большим радушием жду Вас в галерее в любые иные дни! Для друзей в Росс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выложу позже все картины экспозиции. До встречи!»

ИА РУСКОР

Сеульский центр искусств отменил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за свои помещения

Сеульский центр искусств впервые с 1988 года полностью отменяет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воих концертных помещений. Такая мера принята с целью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искусств, столкнувшимся с трудностями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Она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с 5 октября до конца года. Теперь различные частные труппы и коллективы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мещения Сеульского центра искусств для концертов и представлений. При этом должны соблюдаться правил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Данная мера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организации, получающие помощь из госбюджета.

KBS World

Перебежчик из КНДР задержан при попытке вернуться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задержали мужчину, который пытался пересечь межкорейскую границу и пробраться в КНДР.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беглец два года назад сбежал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а теперь по невыясненным пока причинам попытался вернутьс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тделе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асследований Сеуль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лиции,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л 17 сентября в уезде Чхорво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недалеко от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Примерно в 9 часов утра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Южной Коре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танкового полигона 3-й дивизии обнаружили постороннего человека и задержали его при попытке проследовать в сторону границы. Тот не смог вразумительно объяснить, как и зачем он оказался на военном объекте.

В ходе обыска у постороннего были найдены четыре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а и губцевый инструмент. После допроса военные, исходя из гражданского статуса задержанного, передали его местной полиции.

В ходе дальнейших допросов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этот мужчина в возрасте немногим старше 30 лет ранее жил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о в 2018 году перебежал в Южную Корею и с тех пор проживал в Сеуле.

Очевидно, что он по каким-то причинам пытался снова попасть в КНДР, но точные мотивы его повторного побега пока не сообщаются. Скорее всего ему будут предъявлены обвинения в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а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и попытке незаконно попасть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апомним, что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один перебежчик из КНДР, который так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прожил на Юге, в итоге снова ушел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Тогда его побег наделал немало шума. Беглеца в Южной Корее обвинили в изнасиловании другой перебежчицы из КНДР и собирались арестовывать. Он же смог незаметно пробраться через все посты охран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ограничник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в итоге сняли с должности генерал-майора, который отвечал за охрану границы на этом участке, а в КНДР в Кэсоне, куда пришел беглец, был введен длит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из опасений, что перебежчик был заражен коронавирусом.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ям СМИ, подозрения на COVID-19 у него в итоге не подтвердили, а высшее руководств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остило ему побег, отправив работать туда, куда он сам захотел.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1 г. — 551 руб. 1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готова к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Готовность котельных составляет 98 процентов, тепловых сетей – 97 процентов, водопроводных сетей – 95 процентов, жилого фонда – 100 процентов.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о 1 октября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рабо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зиме должна завершиться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Подача тепл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с учетом температурного режима.

С 18 сентября отопительный сезон уже стартовал в северном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21 сентября тепло пришло в дома жителей села Первомайск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 склад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везено 78,9 тысячи тонн угля и 3,1 тысячи тонн жидкого топлива. Остальные объемы поступят к началу октября.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гроза неполучения паспорта готовности к осенне-зимнему периоду существует только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 Котельная не получила полож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экспертизы промышл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Там выявлены нарушения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В августе были предприняты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делили около 1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здания котельной. Работы ведутся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 завершить их планируется к 25 сентября.

– Когда мы начали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котельную, обнаружили еще одну проблему. Требуется починить дымовую трубу.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ее должны до 10 ноября.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успеть получить паспорт к зиме, – пояснила глава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Ольга Манжара.

Накануне осенних холод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также Корсаковскому району. Военные городки только в конце июня этого года перешли из федеральной в обл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з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ыделено почти 11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ремонт котельных, теплотрасс, вод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а также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модульной котельной для села Соловьевка. Все контракты заключены, работы ведутся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Сахалинцы завоевали еще четыре медали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Worldskills Russia 2020

Соревнования впервые проводят в дистанционно-очном формате с применением видеотрансляций и технологии удаленной оценки на каждой площадке. У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же пять призовых мест – 2 золотые медали, 2 серебряные и 1 бронзовая.

Золото по компетенции «Графический дизайн» в копилку сборной области принес сту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Егор Филиппов, а ученица гимназии №3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им Юн Ми завоевала серебро среди юниоров этой же компетенции. Вторым среди молоды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в России в компетенции «Токарные работы на станках с ЧПУ» стал сту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Алексей Маликов. Бронзовую медаль в компетенции «Звукорежиссура» в копилку области принёс Владимир Никитин, сту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А несколькими днями ранее победу в компетенции «Столярное дело» одержал сту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Евгений Кудряшев.

В этом году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первенстве участвует более 2800 человек со всей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финале представляют 36 участников по 32 компетенциям. О результатах соревнований участники узнавали из прямых трансляций на сайте wsr.online и от переживающих за них мастеров-наставников.

– Я ждала свою компетенцию, хотела узнать, смогла ли я занять какое-нибудь призовое место, надеялась хотя бы на 4-е, а тут вдруг такое. Боялась своих соперников, боялась наделать ошибок во время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ний. Но всё-таки смогла. Считаю, что всё было не зря, два года шла к этой цели. Очень счастлива, что попала на состязания. Надеюсь, дальше смогу продолжить развиваться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поделилась ученица гимназии №3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им Юн Ми.

Девушк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занимается н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курсах в «Актив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ыиграла региональный чемпионат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и вошла в состав сборн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участия в финале VII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Отметим,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Ключевая цель – обеспечить экономику страны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стандартам Ворлдскиллс участвуют студенты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т 16 до 22 лет и юниоры (участники направления WorldSkills Juniors) до 16 лет.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Союз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свещения РФ,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узбасса и АНО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АСИ). В качестве партнеров и спонсоров выступили более 50 крупнейших компаний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50 студентов и выпускников высших и средн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Шанс молодым»

Ежег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ло област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14 сахал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150 вакансий для соискателей. Среди них – менеджеры по продажам, электрослесари, инженеры, повара, водители автобуса, монтажник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трубопроводов и другие.

– Главная цель акции «Шанс молодым» – обеспечи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бочими местами. Здесь у ребят есть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собеседование напрямую у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работодателя и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у специалистов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 отмет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рина Ким.

Акцию провели в сте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и. Для выпускников организов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Секреты успешного резюме» и «Собеседование в деталях», провел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тестирование. А работодатели рассказали о преимуществах сво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ожиданиях от будущих работников.

– На ярмарке вакансий я научилась создавать резюме и попробовала пройти собеседование. Это очень пригодится мне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и поиске работы.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очень нужны, поскольку выпускникам довольно непросто найти работу, не имея опыта, – поделилась студент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Алина Кравченко.

Несколько участников, посетивших мероприятие, уже состоят на учете в центре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Молодые люди пришли на встречу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с подготовленным резюме.

– Найти работу в интернете не всегда удается. А здесь живое общение. Меня заинтересовали две вакансии, работодатели отобрали мое резюме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ссмотрения, – рассказал молодой специалист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ладимир Звягин.

По итогам акции состоялся круглый стол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Директо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Елена Савельева отметила, что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того, кто предлагает работу –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труда. А специалис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рекомендовала работодателям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соответствие уровня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предложенным вакансиям.

– Важно учитывать, что выпускника даже без опыта работы не заинтересует работа с низк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ой. Кроме 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в предлагаемых вакансиях обозначался карьерный рост. Молодой специалист должен понимать, что в перспективе он будет зарабатывать больше, чем ему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изначально, – резюмировала Надежда Декунова.

В акции «Шанс молоды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0 студентов и выпускнико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из них получила предложения 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Три новых рельсобуса начнут перевозить сахалинцев в декабре 2020 года

Два трехвагонных и один двухвагонный «Орланы» по заказ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полнены в улучшенной модификации, с учетом пожеланий пассажиров. Выход на рельсы новой техники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Приемка подвижного соста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едприятия-изготовителя в городе Мытищи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третью декаду октября. Сразу после этого технику отправят на Сахалин, где ей предстоит пройти обкатку и выйти на маршрут.

Рельсовый автобус РА-3 «Орлан», созданный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Метровагонмаш» в 2019 году, обладает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м пассажирским салоном и может эксплуатироваться в условиях экстремальных температур, что крайне актуально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алоны оборудуются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табло, на которых отображаются сведения о маршруте следования, системами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и климат-контроля.

– Рельсобусы оборудованы кондиционерами, wi-fi, биотуалетами, адаптированы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Мы учли пожелания пассажиров и передали их заводу-изготовителю. Кресла сделали шире, кроме того, они теперь раздвижные и с откидывающимися столиками. Салон стал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 А чтобы вместимость не пострадала, как раз и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заказать большинство рельсобусов в трехвагонном исполнении. Они вмещают 230 человек,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Проект по обновлению подвижного состава на Сахалине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Рельсовые автобусы будут переданы в лизинг «Пассажирской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 Во всем мире лучшие современные решения дела-

ют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транспорт быстрым и комфортным способом передвижения. Мы хотим, чтобы он был таким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еализуемый проект – наш общий вклад в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ахалина.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 обновление составов не повлечёт за собой рост тарифов для населения,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ФРДВ Алексей Чекунов.

Напомним, новый для Сахалина вид транспорта начал курсировать осенью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сле перешировки узкоколейки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стандарт. РА-3 выполняют рейсы по пригородным маршрута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Томари, Томари – Холм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саков. Маршруты для новых рельсовых автобусов сейчас прорабатываются.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должны обучать лучшие педагоги страны

Такую задачу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Второг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форума «Образование – энергия будущег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пустили проект «Сетевая школа», его суть – использовать самые передов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ресурсы страны для обучения островных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В пилотном проекте задействовали гимназию №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макаровскую школу № 2.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в рамках «Сетевой школы» идет через видеосвязь. Такие урок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 Я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ваю проект. На уроке больше учеников и педагогов. Каждый может дополнить друг друга. А значит и знаний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больше, – поделился ученик макаровской школы Кирилл.

«Сетевая школа» дает новое каче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позволяет выровнять его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ажно, что эта технология дает доступ к лучши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ресурсам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Задача на ближайшее будущее – подключить к обуч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лучших учителей из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Мы будем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оект и для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ой работы в школах, во время лекций работодателей, на курсах подготов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Ставлю задачу открыть при главном вузе региона центр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и привлечь к этой работе 500 лучших педагог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специалистов – для систем общего,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должен быть запущен к 1 октября,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 новом каче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говорили и на другой площадке форума – в гимназии № 3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десь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губернатора с родителями школьников.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едостав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задать вопросы и вне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Родители спрашивали об открытии на базе школ техноклассов, групп продленного дня,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деталями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 Моя дочь одиннадцатиклассница. Перед нами стоит выбор по дальнейшему обучению. Ребенок хочет остаться в регионе. Какие перспективы у нас есть? – спросил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Эльвира Юркова.

Глава области еще раз напомнил о программе двух дипломов, которую реализую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тметил,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набрать на 100 абитуриентов больше.

Задача региона – готовить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новых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производств. Молодежь должна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специальности на стыке дисциплин, таких как цифровая лингвистика, экономика АТР, цифров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логистика. В дальнейшем это позволит выпускникам работать на проектах развития нефтегазового, угледобывающего,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ов. И профориентацию нужно начинать со школьной скамьи – об это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оворил в своем сентябрьском отчете.

– Сфера образования не стоит на месте. Мы в 21 веке, от цифровизации никуда не деться. Предстоит решить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в том числе по дистанционному обучению. И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 руководству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ам форума за то, что устроили такой открытый диалог с родителями. Он получился очень насыщенным и результативным, – отметил модератор встречи,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Института пробле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и «Эврика» Александр Адамский.

С успешным примером комплексного обучения и постепенного ввода в профессию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знакомился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дет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Ребята здесь выполняют обязанности машиниста тепловоза, дежурного п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танции, проводника, осмотрщика вагонов. Погрузиться в профессию помогают и занятия в технопарке «Кванториум» – единственным в системе РЖД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завершение форумских встреч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масштабировать практику предприятия и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ребенок получал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офил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ранней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대한민국



우정 우호 협력 발전
1990 30 2020
ДРУЖБА
ДОБРОТА
ДЕЯТЕЛЬНОСТЬ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교육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30 ле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9 октября 2020 г.

Время: 10:00.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 33, малый зал.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дача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заполненную форму заявки участника с указанием темы выступления и полный текст выступления предоставить до 30 сентября 2020 г.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ки:
sakhalin@mofa.go.kr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Группа 1 – категория обучающихся: студенты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учащиес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учрежде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выступление до 1,5 минут.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выступление до 3 минут.

Группа 2 – смешанная взрослая категория. Выступление до 3 минут.

Темы выступлений:
1. «Корея, которую знаю только я»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группы 1,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2. «Сравнение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осси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группы 1,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и участников группы 2).
3.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группы 1,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и участников группы 2).

Номинации	Группа 1		Группа 2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1-е место	Ценный приз и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15 000 рублей)	Ценный приз и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20 000 рублей)	Ценный приз и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30 000 рублей)
2-е место	Ценный приз и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6 000 рублей)	Ценный приз и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15 000 рублей)	Ценный приз и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20 000 рублей)
3-е место	Ценный приз и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4 000 рублей)	Ценный приз и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5 000 рублей)	Ценный приз и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15 000 рублей)
Поощрительный приз	Ценный приз и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3 000 рублей)	Ценный приз и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5 000 рублей)	Ценный приз и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6 000 рублей)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3 000 рублей)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3 000 рублей)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3 000 рублей)



대한민국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우정 우호 협력 발전
1990 30 2020
ДРУЖБА
ДОБРОТА
ДЕЯТЕЛЬНОСТЬ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교육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한-러 수교30주년기념’ 한국어말하기 대회

- 일시 : 2020년10월 9일, 10:00
- 장소: сахалин국립대학 소강당 (코무니스티체스키 거리, 33 번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만 입장 가능
- 주최 :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정부(교육부)
- 주관: сахалин국립대학교 한국어과
- 참여대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할린 주민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주제 및 요약본 첨부) 9.30.까지 최종 원고 제출

* 사할린 출장소 (sakhalin@mofa.go.kr)

- 참가부문

구분	대상
학생부	한국어를 배우는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일반부	학생을 제외한 모든 일반인

- 참가주제(3가지중 택일)

- 내가 아는 한국
- 한국-러시아 문화 소개(비교)
- 한국과 러시아(사할린) 간 협력 방안

구분	학생부		일반부
	초급	중고급	
1등(각 1명)	상품과 상품권 (15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20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30 000 루블)
2등(각 1명)	상품과 상품권 (6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15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20 000 루블)
3등(각 1명)	상품과 상품권 (4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5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15 000 루블)
장려상(각 2명)	상품과 상품권 (3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3 000 루블)	상품과 상품권 (6 000 루블)
인기상(각 1명)	상품권 (3 000 루블)	상품권 (3 000 루블)	상품권 (3 000 루블)

한국시 낭송대회

КОНКУРС ЧТЕНИЯ СТИХОВ

ПРИЕМ ЗАЯВОК*: SEJONG@INFO-KOREA.RU
с 21 по 30 СЕНТЯБРЯ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Ф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 까지 등여야 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들 꽃
다시 꺾을 때 까지



한국문화원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한국시화전

КОНКУРС ИЛЛЮСТРАЦИЙ К СТИХОТВОРЕНИЯМ

ПРИЕМ ЗАЯВОК*: SEJONG@INFO-KOREA.RU
с 28 СЕНТЯБРЯ ПО 11 ОКТЯБРЯ 2020 ГОД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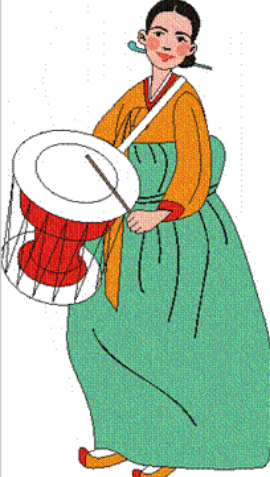
한국문화원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광복절 행사에 초대

사할린 주
민들과 섬 방문
객들을 광복절
75주년, 남부사
할린과 쿠릴열
도 해방 75주년,
러·한 수교 30
주년 기념 행사
에 초대합니다.
행사는 9월 26
일 오전 11시
유즈노사할린
스크시 가가린
공원 <코스모
스>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스포츠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사할린 예술단들과 <에트노스>한민족 문화예술과 공연, 한민족 노래자랑, 다양한 공예 활동교실(부채 그림, 탈 그림, 한지, 한글쓰기 등), 태권도와 씨름 대회 등이 손님들을 기쁘게 해 줄 것입니다.

기념행사 조직위원회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Традиционно мы устроим и рок-концерт. В этом году выступают группы "Экарма", "Налог на спички", Maen, Aniwa, Room-420, Flying Eyeball. А еще мы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покажем стантрайдинг-шоу из Хабаровска. Его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показывать трюки на мотоциклах, – поделились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бытия.

Для гостей и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уют бесплатный подъем на канатной дороге с 14:30 до 18:00.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нется в 15:00.

아이스크림,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잡아

한국의 해외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수출의 경우, 올해 첫 8개월 동안 11%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아이스크림의 해외 수출액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4,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아이스크림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은 한국 아이스크림 제품군 수입량에서 전년 동기 대비 27.9% 늘어난 1,296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어 중국 693만 달러, 캐나다 481만 달러, 베트남 355만 달러, 필리핀 328만 달러 순이다.

해당기간 동안 한국의 해외 아이스크림 수입액은 총 2,837만 달러로 그 중 가장 많은 수입량은 1,166만 달러로 프랑스가 차지했다.

Мороженое стало важным предметом экспорта Южной Кореи

Экспорт мороженого Южной Кореи вырос более, чем на 11 процентов за первые восемь месяцев этого года, несмотря на общий спад зарубежных отправок.

Зарубежные отправк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ороженого составили US\$47 миллионов в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август, на 11,1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таможенных служб Кореи.

Самым крупным импортер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ороженого оказались США, куда было отправлено такой продукции на \$12,96 миллиона, на 27,9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алее следуют Китай с \$6,93 миллиона, Канада с \$4,81миллиона, Вьетнам с \$3,55 миллиона и Филиппины с \$3,28 миллиона.

За этот период импорт мороженого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авил \$28,37 миллиона, при этом самая большая доля в \$11,66 миллиона пришлась на Францию.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26 СЕНТЯБРЯ 2020 г.
11:00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им. Ю. Гагарина
(стадион «Космо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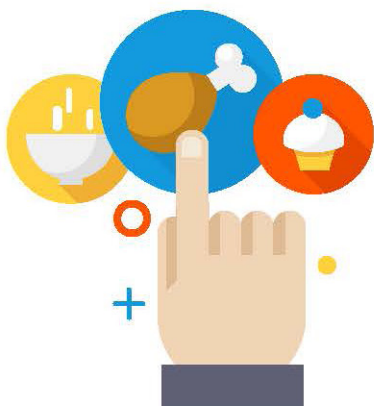
11:00-12.30 –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праздника.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ДШИ "Этнос".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Тхэквондо.
Национальная корейская борьба ссирым. Запланированы 2 весовые категории среди взрослых:
Мужчины до 90 кг., свыше 90 кг.
1 место – морозильная камера, подарочный бычок на постаменте
2 место – аудиосистема
3 место – микроволновая печь
Женщины:
до 18 лет – сувенирная продукция
старше 18 лет – ценные подарки
Угощение блюд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декоративному 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Кореи.
Выставка "Знакомство с Кореей." Фотовыставка.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